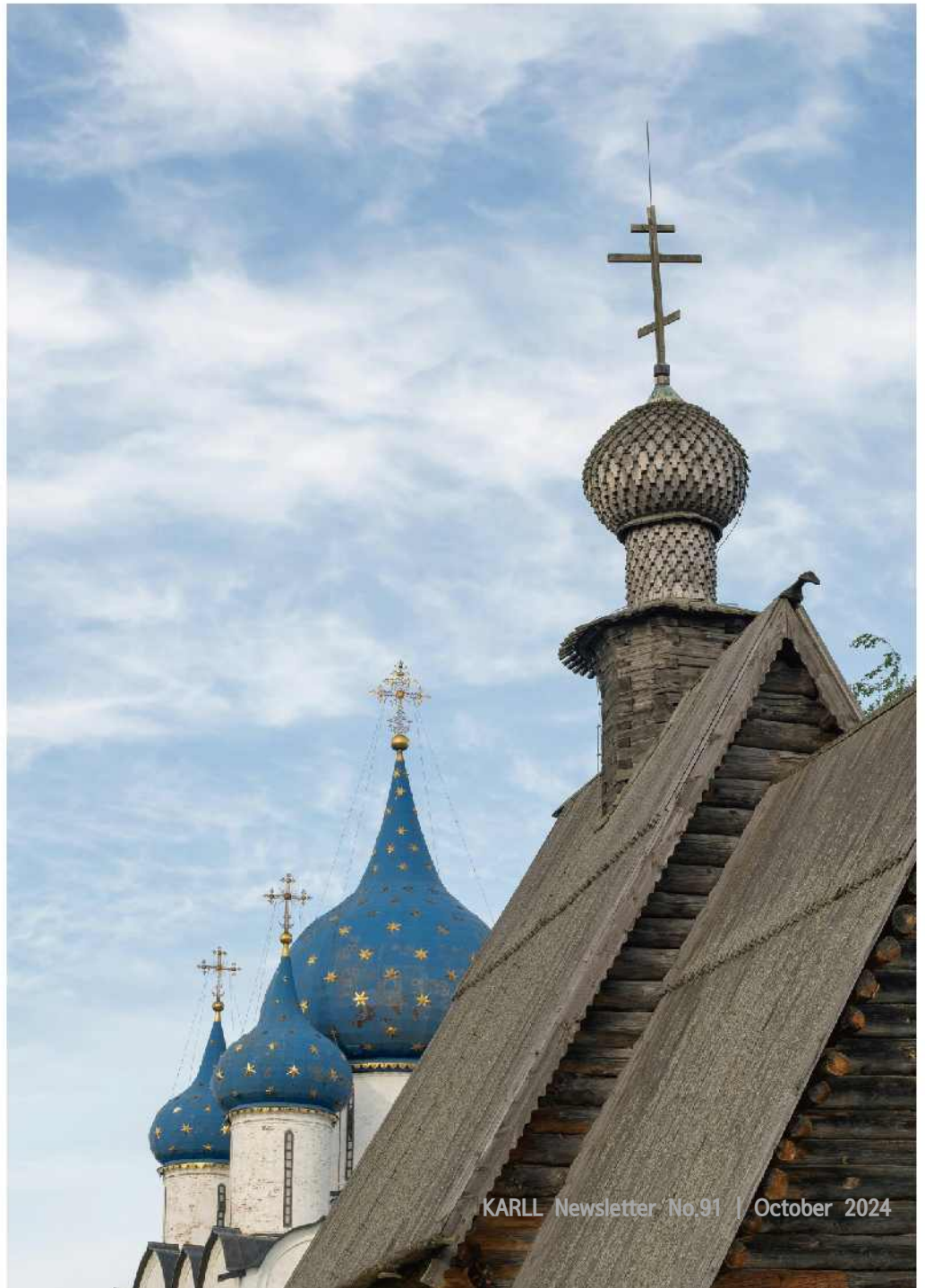


한국노어노문학회 소식지

Корей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2024년 10월 제91호

KARLL The Korean Association of
Russian Language & Literature





The Korean Association of Russian Language & Literature

한국노어노문학회 소식지

2024년 10월 제91호

한국노어노문학회 소식지

2024년 10월 제91호

발행처: 한국노어노문학회

발행인: 김성일

편집인: 한국노어노문학회 총무국

주 소: [28503]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98 청주대학교 교수연구동 310호

전 화: 02-820-5879

Homepage: <https://karll.or.kr>

E-mail: karll21@naver.com

총무국 계좌(연회비/평생회비 납부전용): 우리은행 1002-164-894347 (예금주: 송정수)

편집부 계좌(심사비/논문게재비 납부전용): 농협 302-1890-4532-51 (예금주: 강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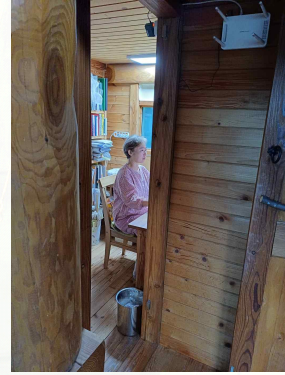
목 차

CONTENTS

I	권두언	3
II	학회소식	5
III	회원논단	9
IV	한국을 향한 창	12
V	러시아를 향한 창	14
VI	신간 안내	18
VII	공지 사항	21
VIII	학회지 『노어노문학』 투고 안내	22
IX	회비납부 현황	24
X	시와 함께 머무는 시간	25

권두언

가을 학술대회에 부쳐



박미령(한국외대)

한반도를 다 태워버릴 듯 뜨겁게 불타던 여름도 기세가 조금씩 꺾이고 논의 나락이 조금씩 영글어가면서 가을은 희미하게 그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 학교의 시계에서 가을은 단풍이 아름답게 물드는 천고마비의 계절이기보다 한가롭던 방학이 끝나가고 학기가 시작된다는 걸 의미하니 시간을 저마다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다. 2학기가 시작되고 학교로 가는 길에서 보는 가을의 풍경은 시선 앞에 놓인 유리창 너머의 세계, 나와는 다른 세계처럼 여겨지곤 했다. 새벽의 공기가 차가워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또 하나의 시작을 준비해야 하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번 가을에는 4개 학회 공동학술대회가 있다. 러시아 관련 4개 학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학술대회이지만 큼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동료들을 만날 기회이고 서로가 연구했던 지식을 공유할 자리가 될 것이다. 러시아학도 좋았던 때가 있었다. 학회는 각 학교에 흩어져 있던 선후배, 동료들이 서로 그동안의 안부를 묻고 화담을 나누던 자리가 되어 주었다. 대단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것보다 못 봤던 얼굴들을 보면서 즐거워하던 자리였다. 그런 학회가 생기를 잃고 참석하는 인원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필자의 나이처럼 학회도 시들어가는 느낌이다. 이번 4개 학회 공동학술대회를 기점으로 다시 생기가 있는 학회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오랜만에 열리는 4개 학회 공동학술대회는 다양한 주제로 열려 들을 거리도 많다. 역사, 문화, 문학, 어학 등 다양한 주제로 지식의 지평을 늘릴 기회가 주어진다니 기쁜 마음도 든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를 보면, 팬

데믹과 전쟁이란 키워드로 진행되는 학술대회여서 앞으로의 세계 변화를 진단해 본다는 의미에서 기대가 된다. 팬데믹과 전쟁은 21세기의 가장 큰 위기였다. 이 두 사건은 세계를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상당한 변화에 맞닥뜨리게 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인류는 왜 매번 실수를 반복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 E. H. 카는 자신의 저서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이야기했다. 이는 역사를 통해 미래에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국내를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의 상황을 보면, 역사를 통해 배운 바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과거에도 팬데믹과 전쟁은 세기마다 존재했다. 그 위기를 겪으면서 문화와 문명이 발달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 폐해가 너무 커서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과거와 지금의 이런 위기를 재조명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지혜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

필자도 한국노어노문학회의 일원으로 이번 학술대회에 발표하려고 신청했다. 발표를 준비하려다 보니 권력과 예술의 관계에 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어느 나라나 독재자가 정권을 잡으면 언론을 통제하고 예술을 검열하며 돈이나 권력으로 그들의 창의성을 막는다. 권력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술, 문화의 힘이 그만큼 대중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히틀

리, 스탈린과 같은 독재자는 예술을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데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반하는 예술은 철저히 탄압하고 배제했다. 예술에 대한 탄압과 부정은 플라톤부터 시작되었고 칼 포퍼는 이런 플라톤을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서 전체주의를 조장한다고 비난한다. 예술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지만, 언제나 권력은 예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제2차 세계대전은 예술에 관한 여러 혁명적인 이론들이 나오는 계기가 되었다. 예술에 해박했던 히틀러는 정치를 예술화시키면서 자신의 폭력을 미화시켰다. 발터 벤야민은 이를 “정치의 예술화”라고 이야기했다. 소비에트의 사회주의 리얼리즘도 “정치의 예술화”의 한 예가 되겠다. 스탈린은 예술을 이데올로기, 당국의 성과를 선전하고 민중을 선동하는 데 이용했다. 이에 반하는 예술은 철저히 검열하고 탄압했다. 필자가 여류화가인 베라 예르몰라예바에 관한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누군가가 왜 그녀가 사형을 당해야 했느냐고 물었다. 안타깝게도 시대에 족적을 남겼던 뛰어난 작가와 예술가들이 1937년 피의 숙청에 죽어 나갔고 살아남은 자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비테브스크 인민예술학교 교사들, 샤갈, 엘 리시츠키, 베라 예르몰라예바 등

발터 벤야민은 이런 “정치의 예술화”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예술의 정치화”를 이야기한다. 그는 자신의 저서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에서 기술의 발달은 예술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아우라를 벗겨내고 민주화를 이끌어냈으며 예술이 정치를 견제하고 정치적인 틀을 만들어 제한하고 억압하려는 것을 탈피해 권력과 전쟁으로 파괴된 인간성을 회복하는 데 예술의 역할을 강조

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도 “문학의 영상화”에 관한 큰 주제도 있다. 영상이라는 기술을 통해 문학은 대중에게 훨씬 쉽게 다가가게 된다. 영상을 통해서라면 문맹도 문학을 접할 수 있게 되고, 어려운 소설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예술의 정치화”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기술의 발전은 이런 매체 간의 결합을 가능하게 한다.

풍성한 가을만큼 이번 가을 학술대회는 볼거리, 들을 거리의 향연이 될 것이란 기대가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오랜 시간 진행되면서 세계에 영향을 끼쳤고 전쟁의 참혹함을 다시 한번 인류에게 각인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도 이번 학회의 테마를 보면서 많은 영감을 얻어갈 수 있을 것 같다.

학회 소식

● 2024년 러시아학 4개 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매년 10월은 러시아학 4개 학회(한국노어노문학회, 한국러시아문학회, 한국슬라브어학회,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가 함께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달입니다.

다가오는 10월 12일 고려대학교 한나스퀘어에서 열리는 이번 공동학술대회의 주제는 <포스트 이후의 포스트: 포스트 팬데믹, 포스트 워, 그 이후의 유라시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21세기를 맞이한 인류에게 유례없는 세계적 전염병의 심각성을 일깨워 준 사건이었습니다. 2022년 초 팬데믹이 잦아들 무렵,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라는 새로운 위기의 국면이 전개되었고 전쟁은 현재까지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학술대회에서는 러시아학을 연구하는 문학, 문화와 역사, 어학과 통번역, 그리고 사회과학 분야의 전문가 및 학자들이 모여 급변하는 유라시아 세계를 둘러싼 다양한 연구의 방향성과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2024년 러시아학 4개 학회 공동학술대회 프로그램

PROGRAM		
개회식 [한나스퀘어 강당 B112호]		
10:00~10:10	개회사: 한국노어노문학회장 (2024년도 주관학회) 김성일 (청주대)	
문학분과 세부 일정 [한나스퀘어 멀티미디어룸 B115호]		
문학분과 A	분과주제: 포스트 워 시대의 문학: 기억과 반향 사회: 백승무 (서울대)	
10:15~10:50	▶ 부차 이후에 서정시를 쓴다는 것: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현대시의 지도 발표자: 이종현(경북대) / 토론: 송정수(중앙대)	
10:50~11:25	▶ 올가 베르골초프의 레닌그라드 봉쇄 텍스트(2): 자전적 산문 「낮별」의 기억과 기록 읽기 발표자: 강수경(부산대) / 토론: 김준석(경기대)	
11:25~12:00	▶ 파스테르나크의 전후(戰後) 창작 연구: 종교철학적 인격과 민족 이념을 중심으로 발표자: 임혜영(고려대) / 토론: 김민아(경북대)	
문학분과 B	분과주제: 팬데믹 이후의 문학과 세계: 소통과 확장 사회: 김성일(청주대)	
13:00~13:35	▶ 니콜라이 레스코프의 1875~1895년 “의인” 형상의 현대상: 정의와 소통과 상호신뢰의 고양을 위하여 발표자: 이경완(한림대) / 토론: 홍지영(연세대)	
13:35~14:10	▶ 안나 야블론스카야(Анна Яблонская)의 희곡 「이교도들(Язычники)」 연구 발표자: 윤서현(서울대) / 토론: 김태욱(충북대)	
14:10~14:45	▶ 미하일 바흐친의 ‘대시간(большое время)’ 개념 다시 읽기 발표자: 전미라(한국외대) / 토론: 최진석(서울과학기술대)	
문학분과 C	분과주제: 러시아-유라시아 문학의 재발견(학문후속세대 특별세션) 사회: 윤영순(경북대)	
15:00~15:35	▶ 알리셰르 나보이의 창작과 우즈베키스탄 문학 발표자: 피루자 마블라노바(충북대) / 토론: 조규연(단국대)	
15:35~16:10	▶ 나테쭈다 만델슈탐의 회고록 다시 읽기 - ‘회고록’ 쓰기와 여성의 자기 서사 - 발표자: 김혜영(연세대) / 토론: 차지원(충북대)	
16:10~16:45	▶ 은세기 여성의 글쓰기 - 지나이다 기피우스의 비명을 중심으로 - 발표자: 장은재(서울대) / 토론: 서광진(경북대)	

문화/역사 분과 세부 일정 [하나스퀘어 강당 B112호]

문화/역사분과 A	분과주제: 포스트소비에트 시대 문학 서사의 영상화 경향	사회: 차지원 (충북대)
10:15~10:50	▶ 소설 『죄와 벌』의 문학콘텐츠화 연구: 1979년 타간카 공연의 프롤로그적 고찰 발표자: 이승역(경북대) / 토론: 박선영(서울대)	
10:50~11:25	▶ 성인문학의 애니메이션화에서 나타나는 다층적 서사 발표자: 박미령(한국외대) / 토론: 이은경(한국외대)	
11:25~12:00	▶ 이동파 신화에 대한 도전: 혁신적 예술단체인가, 상업적 이익단체인가? 발표자: 이상철(경북대) / 토론: 심지은(경상국립대)	
문화/역사분과 B	분과주제: 전쟁 이후의 세계와 기억의 문제 - 기억의 재구성 과 재정립 -	사회: 류한수 (상명대)
13:00~13:30	▶ 전쟁의 역사와 역사의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심으로 발표자: 신보람(전북대) / 토론: 구자정(대전대)	
13:30~14:00	▶ 우크라이나 전쟁 이주와 인구 위기 발표자: 이문영(서울대) / 토론: 고광열(서울대)	
14:00~14:30	▶ 전후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역사적 쟁점에 관한 양국의 역사관 변화 양상의 일고찰 발표자: 이광태(한림대) / 토론: 송준서(한국외대)	
14:30~15:00	▶ 학살하는 어떻게 “자유의 민주 반공투사”가 되었나? - “뉴욕의 아이히만?” 미클라 레베드와 냉전 초기 미국의 대소련 우크라이나 공작 - 발표자: 구자정(대전대) / 토론: 송준서(한국외대)	
문화/역사분과 C	분과주제: ‘포스트’ 시대의 러시아 영화 서사와 그 특징	사회: 이지연 (고려대, 한려대학 문화예술분과 간사위원)
15:15~15:45	▶ 애국주의에서 탈서구화까지: 후기 푸틴 시대의 러시아 영화에 나타난 주요 경향 연구 발표자: 라승도(한국외대) / 토론: 조준래(한국외대)	
15:45~16:15	▶ 시상식을 통해 본 러시아 영화, 2022년 이후 발표자: 황기은(서울대) / 토론: 이희원(상명대)	
16:15~16:45	▶ 2022-2023 러시아 영화에 나타난 여성 서사 발표자: 홍상우(경상국립대, 한려대학 문화예술분과 위원) / 토론: 정미숙(가톨릭관동대)	

어학/통번역 분과 세부 일정 [하나스퀘어 강의실 B119호]

어학/통번역분과 A	분과주제: 러시아 통번역학의 통시적 · 공시적 연구	사회: 김성완 (계명대)
10:15~10:50	▶ 러시아 통번역사 연구 - 소비에트 시대를 중심으로 발표자: 유정화(육군사관학교) / 토론: 강종희(한국외대)	
10:50~11:25	▶ 러시아 영상 콘텐츠에서 관용어 번역 양상 - 넷플릭스 ‘메이저 그룹: 플레이그 닥터’를 중심으로 발표자: 김규형(한국외대) / 토론: 서유경(한국외대)	
11:25~12:00	▶ 경찰통역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노트태이킹 발표자: 홍서연(단국대) / 토론: 정혜린(고려대)	
어학/통번역분과 B	분과주제: 포스트소비에트 시대의 러시아 사회언어학 연구	사회: 한만춘 (상명대, 한국슬라브어학회장, 한려대학 문화예술분과 위원)
13:00~13:35	▶ 슬라브어 한정성의 문법화: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후치정관사의 보편성과 특수성 발표자: 정정원(충북대) / 토론: 채유정(한국외대)	
13:35~14:10	▶ 프리발티카의 러시아인과 러시아어 상황 발표자: 정경택(경상국립대) / 토론: 변군혁(한국외대)	
14:10~14:45	▶ 교수법의 절충주의적 접근을 통한 ‘중급러시아어작문’ 수업 모델 연구 - 이동동사를 중심으로 발표자: 이새봄(중앙대) / 토론: 손현익(한국외대)	
어학/통번역분과 C	분과주제: 슬라브 언어학의 제문제 연구	사회: 김태진(배재대)
15:00~15:35	▶ 17세기 말 언어 접촉의 증가: Grammatica Russica(1696)의 문법적 간섭현상 연구 발표자: 한지형(부산가톨릭대) / 토론: 김희연(안양대)	
15:35~16:10	▶ 러시아어의 энантиосемия 현상에 대하여 발표자: 길윤미(경북대) / 토론: 이남경(경상국립대)	

사회과학 분과 세부 일정 [하나스퀘어 강의실 B120회]

사회과학분과 A	분과주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라시아의 외교안보와 한반도 사회: 김선래 (한국외대)
10:15~10:50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외교안보정책의 변화 발표자: 김성진(덕성여대, 한러대화 정치국제관계분과 간사위원) / 토론: 제성훈(한국외대)
10:50~11:25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앙아시아의 친중화와 한반도 발표자: 윤성학(고려대) / 토론: 최재덕(원광대, 한러대화 정치국제관계분과 위원)
11:25~12:00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앙아시아 역내 다자협력 강화: 배경과 요인 발표자: 이지은(한국외대) / 토론: 성동기(인하대)
사회과학분과 B	분과주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의 경제안보와 유라시아 사회: 김병호(매일경제)
13:00~13:35	▶ 러·우 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발표자: 김영식(강릉원주대, 한러대화 경제통상분과 간사위원) / 토론: 강명구(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13:35~14:10	▶ 러·우 전쟁과 카자흐스탄의 교역구조 변화 발표자: 엄동호(한신대) / 토론: 박지원(KOTRA, 한러대화 경제통상분과 위원)
14:10~14:45	▶ 핵심 광물 공급망 재편과 한국-중앙아시아 협력 발표자: 변현섭(계명대) / 토론: 고주영(한국외대)
사회과학분과 C	분과주제: 포스트 팬데믹, 포스트 워 시대 유라시아의 정치경제 사회: 장세호(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러대화 정치국제관계분과 위원)
15:00~15:35	▶ 우크라이나 전쟁 요인 분석: AHP 분석을 중심으로 발표자: 이주연(한양대) / 토론: 장하영(경북대)
15:35~16:10	▶ 포스트 팬데믹 시대, 러시아의 디지털 전환 양상 발표자: 김유정(한국외대) / 토론: 윤영민(한양대)
16:10~16:45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유라시아 국가의 과학기술 동향 분석 발표자: 최배성(한양대) / 토론: 정선미(한국외대)

통합분과 세부 일정 [하나스퀘어 강당 B112회]

통합분과(라운드테이블)	특별기획세션: '포스트' 시대의 유라시아 세계: 새로운 갈등의 시작과 정체성 모색
17:00~17:50	사회: 김진규(고려대, 한국러시아문화회장, 한러대화 교육과학분과 간사위원) - 특별패널1(문학): 윤영순(경북대) - 특별패널2(어학): 김형섭(중앙대) - 특별패널3(문화): 김수환(한국외대) - 특별패널4(사회과학): 이상준(국민대, 한러대화 경제통상분과 위원)
17:50~18:00	폐회사: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차년도 주관학회) 정세진(한양대)

학회 소식

● 2024년도 한국노어노문학회 연례학술대회 개최 및 발표자 모집 안내

2024년도 한국노어노문학회 연례학술대회가 12월 7일 토요일 오후 1:30~5:30에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연구동 세미나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연례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희망하시는 연구자분들은 10월 31일까지 학회 총무국 메일(karll21@naver.com)로 발표문 테마 및 제목을 간략하게 적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학회 홈페이지 신규개편 및 회원정보 갱신 안내

한국노어노문학회의 홈페이지가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https://karll.or.kr>)

기존의 홈페이지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기반으로 제작되어 더 이상 구동되지 않는 관계로 새로운 플랫폼 기반의 신규 홈페이지를 제작,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홈페이지에서 학술대회안내 및 참가 신청, 회원가입, 논문 투고 안내, 연회비 납부 현황, 씨앗 기부금 현황, 신간 안내 등을 직접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가입 회원을 대상으로 러시아 어문학 관련 유용한 정보 및 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자료실을 함께 준비 중입니다.

이에 신규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회원 정보를 갱신해주시기 바라며, 새롭게 단장한 우리 학회 홈페이지에 많은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회원논단

<러시아·우즈베키스탄 현대미술> 참관 후기



글: 강수경(부산대) / 사진: 이상철(경북대)

대구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봉산문화회관이 개관 20주년을 맞이해 특별 기획한 해외작가 초대전이 “러시아·우즈베키스탄 현대미술”이라는 제목으로 개최되었다.

학회 소식지를 편집하던 중 전시 소식을 듣고 8월 8일 전시 오프닝에 참석하기 위해 대구를 찾았다. 전시회에는 경북대학교에서 강의하는 이상철, 정지운 선생님이 동행했다.

서울과 부산에는 각각 러시아 대사관과 영사관이 있어서 “러시아의 날” 행사를 비롯해 다양한 교육문화예술 관련 이벤트가 많이 진행되지만, 대구에서 현대미술 전시 열린다는 건 꽤 생경한 일이었다. 하지만 봉산문화회관에 도착해서 관장님을 만난 후 왜 그곳에서 이런 행사가 개최될 수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봉산문화회관은 대구의 고서적, 골동품, 표구점, 필방들이 모여 있어 ‘문화거리’라 불리는 구도심 중구에 자리 잡고 있다. 2004년 개관한 이곳의 현재 관장인 노태철 관장은 그동안 세계 60여 개 오케스트라와 950회 공연을 한 경력의 지휘자 출신이다. 무엇보다도 그는 동양인으로서 최초로 ‘러시아 마에스트로’로 불리며 러시아의 여러 도시에서 약 20여 년간 지휘자로 활동했다. 모스크바 국립오케스트라단을 비롯해 유수의 러시아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공연을 한국에서 수차례 선보인 바 있다. 러시아의 올란우데, 야쿠츠크 음악원 교수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우즈베키스탄 국립오페라·발레극장 상임 지휘자 및 타슈켄트 국립음대 교수로도 재임 중이다. 이번 기획 전시는 누구보다도 러시아 문화를 사랑하는 노태철 관장이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노태철 관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함께



<이맘 알-부카리> 바흐티오르 데다셰프
(2024, 사마르칸트 종이에 템페라, 수채화, 펜달골드 35*50 cm)

이번 전시에는 러시아의 이르쿠츠크와 야쿠츠크,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젊은 작가들 및 두 나라의 원로작가들이 함께 작품을 선보였다. 봉산문화회관은 “두 나라의 원로작가와 청년작가의 회화작품을 함께 전시하여, 공통되는 고전적인 예술 기법과 각국의 독창성을 발견하고, 현대적 감성의 결합으로 예술의 지속성과 변화를 찾아보는 관람 방식을 통한 관람객의 적극적인 관람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전시를 통해 다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고 예술이 문화적 교류와 이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여, 관람객이 문화의 다양성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침〉 라나 림
(2013, 캔버스에 유채, 50*70cm)

오늘날 세계적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고 국가와 민족, 집단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예술을 통해 소통하고 대화를 이어나갈 다양한 기회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하게 된 소중한 전시회 탐방이었다.

봉산문화회관에서 기획한 <러시아·우즈베키스탄 현대 미술> 전시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다음 사이트를 참조할 수 있다:

https://www.bongsanart.org/bongsanart/exhibition/sub_0101_view.html?num=2015&year=&titlenavtt=4&page=1

백문이 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 사진을 통해 전시회 참여 작가와 그들의 작품을 소개하며 글을 갈무리한다.



시몬 루칸시(러시아, 야쿠츠크)



쇼크루 코시모프(우즈베키스탄)



아르툰 울리야노프(러시아, 이르쿠츠크)



라나 림(우즈베키스탄)



바흐티요르 데디셰프 (우즈베키스탄)



율리아 소트니코바 (러시아, 이르쿠츠크)



자복히르벡 니야조프 (우즈베키스탄)

● **강수경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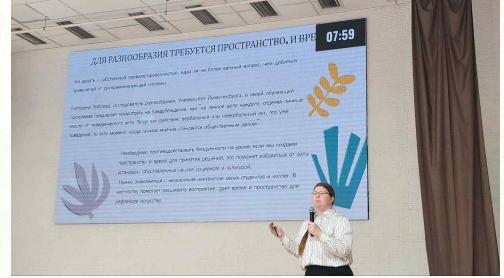
강수경은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 재직하며 연구와 번역, 강의를 병행하고 있다.
러시아 문학사의 빈틈을 채우는 공부 및 문학 너머의 삶에 관심이 많아 최근에는 19세기 여성들의 독서와 문학, 테피, 카바레와 미니 어처 극장, 봉쇄 문학, 현대 러시아 문학의 경향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이상철은...**

이상철은 모스크바 국립사범대학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경북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강사로 재직하고 있다. 대구·경북 인문학협동조합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아마추어 사진작가로 인물, 풍경 등 사진을 찍는다.
최근에는 문학 외에도 지역학과 문화 쪽으로 연구의 저변을 넓히고 있어 소수민족의 전쟁사에 대한 논문도 쓰고 있다. 역서로 부닌 단편선(2021)이 있다.

한국을 향한 창

한국 땅에 내린 러시아 뿌리: 우리의 새로운 삶의 역사



나탈리아 V. 체르카이 (푸슈킨 언어대학 석사과정, 재외 러시아 아동을 위한 러시아어 교사)

2년 반 전 우리 가족은 모스크바에서 비행기를 타고 10시간을 날아 미지의 나라, 한국으로 왔다. 이 시간은 마치 끊임없이 울이 풀리는 스웨터와 같은 시간이었다. 내 일, 정신적 버팀목, 가족의 가치라는 실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무언가 새로운 것을 붙잡아야 했다. 그러나 어찌겠는가? 매일 아침 새집에서 깨어나면서 난 이 놀라운 나라의 일부가 되는 것을 배워나갔다. 이 나라의 리듬, 언어, 전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두려움으로 깨어났고, 불신 가운데 잠이 들었다. 정말 다 괜찮은 걸까, 아니면 나 혼자서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새로운 집에 왔다는 느낌이 들면서 책임 의식도 생겨났다. 나는 아이들의 러시아어를 보존하길 원하는 많은 이민자 가족들과 일한다. 그러한 아이들의 러시아어는 다양한 상태에 놓여 있다. 모국어일 수도 있고 완전히 외국어일 수도 있고, 그 중간쯤 어디일 수도 있다. 러시아어 화자인 부모가 언어 발달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러시아어는 완전한 모국어가 될 수도, 제2 모국어 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에 있는 다문화 가족은 꽤 흥미롭고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세계 문화를 보여주는 미니어처 모델이 되며, 다양한 나라들이 서로 화해하고 친밀해질 수 있는 첫 번째 가능성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여러 나라에 사는 러시아 어린이들의 모국어와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는 일을 하면서 가족과 사회 전체에 있어 자신의 뿌리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본다. 전통과 문화가 사회생활에서 큰 역할을 하는 한국에서 모국어에 대한 지원은 특별한 관심과 이해

의 대상이다. 러시아 및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은 이러한 지원 덕분에 자신의 마음에 창의성과 어떤 큰 것에 대한 소속감도 느끼게 된다.



아들 표트르(10세)와 보리스(7세)

작가 베네딕트 예로페예프는 말했다: “사람은 고독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자신을 사람들에게 내어 줄 수 있어야 한다. 심지어 그를 받아들이길 원하지 않는다 해도 말이다.” 모든 이민자, 이민자 가족들에게 이 조금은 씁쓸한 아이러니는 잘 이해된다. 고독은 사람을 꾸며주는 게 아니라, 그를 상처받기 쉬운 사람으로 만든다. 사실 사람이 어떤 새로운 땅에 오면 처음에는 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에 앞서 이미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존경하고, 존경받기를 원한다. 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어 한다.

한국에서 자신을 외롭다고 느낄 수 있을까? 어느 날 내 둘째 아들이 밖에서 놀다 들어와서는 놀라워하며 이렇게 물었다: “엄마, 또 사탕을 줬어. 내가 귀여워서 주

는 거야?”. 이 감동적인 말은 한국 사회가 얼마나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는지, 한국 사람들이 가족과 전통을 얼마나 아끼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한국 학교(현재 두 아들은 서울 지구촌 학교에 다니고 있다), 스포츠클럽, 한국 교사, 트레이너와 부모들은 거대한 네트워크가 되어서 미소와 따뜻한 말과 같은 인간적 접촉으로 지지 해주었다.



주니어 아이스하키 선수로 활동 중인 큰아들 포트르

지금 우리 러시아 아이들은 미얀마, 이란, 중국, 일본 등의 나라에서 온 아이들과 함께 공부한다. 이건 그냥 단순한 학교가 아니라, 언어와 문화가 한데 섞이는 특별한 공간이다. 난 기억한다. 어느 날 내 아들과 한 반에서 공부하는 아이가 내게 다가와 조용히 내 소매를 당기며 이렇게 말했다: “재들과 놀고 싶어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단순한 아이의 바람 속에 바로 우리가 외국에 이주해 부딪치는 본질적인 것이 있다. 우리는 모두 이해하기를 원하고 이해되기를 바란다. 말 그대로 공통의 언어를 찾고 싶어 한다.

이동의 권리, 이주할 자유에 대해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인류 역사상 이와 같았던 적은 없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를 다니고, 자기가 살아갈 곳을 선택한다. 그러나 자기 가족과 관련된다면 또 문제는 달라진다. 그렇다. 형식적으로는 난 내 아이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적당한 장소를 찾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질문에 맞닥뜨린다: 집을 자주 바꾸는 게 옳은 것인가?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는 자신의 여주인공 중 한 명의 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생각을 말했다. 그것은 내 마음에도 있는 생각이다. “당

신에게 날개가 주어진 건 날개를 펼쳐 구름 너머로 날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지요. 그러나 여자인 내게 그것은 땅에 잘 착륙해 어린 새들을 위험으로부터 덮어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러시아와 한국 여성 누구나가 가진 가치이며 그래서 나는 머무르기를 원한다.

때로 산에 오르며 한국의 산 너머로 태양이 지는 것을 보면서 나는 생각한다. 아직도 많은 것이 내 앞에 있음. 내가 최종적으로 이 나라에 정착할 수 있을까? 시간이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가지는 이 사회에 내가 기여할 수 있도록, 내 아이들이 이곳을 자신의 집으로 여길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거라는 거다. 한국의 땅은 기적의 땅이다. 낫선 이가 어떤 씨앗을 심든 매일 매일 잘 가꾸면 모두 놀랍게, 멋지게, 풍성하게 자라난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용기를 갖고 자신의 뿌리를 이 새로운 한국 땅에 잘 내린다면, 우리의 노력이 러시아와 한국의 전통이 서로 함께 엮이는 정원을 만들고 그곳에 꽃이 활짝 필 수 있을 것이다.

● 나탈리아 V. 체르카이는...

나탈리아 체르카이의 가족은 2022년부터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남편의 직장 일로 한국으로 이주해 온 이후 나탈리아는 푸슈킨 언어대학의 석사과정에서 “외국어로서의 러시아학”을 공부하고 있으며, 전 세계 디아스포라 러시아 아동들을 대상으로 러시아어 수업을 하고 있다. 동시에 두 아들의 엄마이기도 한 나탈리아는 재외 러시아 아동들의 러시아어 학습에 대해 학문적, 실제적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자신의 일과 실생활에서 찾는 중이다.

러시아를 향한 창

모스크바 교환학생 후기

(2023.09 ~ 2024.06)



김민규 (충북대학교)

1. 나의 모스크바

난 2023년 2학기과 2024년 1학기 동안 모스크바 국립언어대학교로 어학연수를 다녀왔다. 나의 모스크바 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 군대 가기 전 여행으로, 2023년 여름방학 중 한 달간의 인턴으로 모스크바 생활을 경험했다. 나의 첫 해외 여행지이기도 하면서 세 번이나 방문한 도시 모스크바는 그래서 내겐 멀지만 특별하고도 가까운 곳이다.

2. 인턴

교환학생 후기를 쓰기 전에 그에 앞서 한 달간 다녀온 인턴 경험을 나누고자 한다.

모교인 충북대학교의 김태욱 교수님의 도움으로 모스크바에 법인을 둔 중견 물류회사 유니코의 모스크바지부 법인장님과 연락이 닿았고, 정말 운 좋게 그곳에서 인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활동비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기에 내겐 정말 좋은 기회였다. 이 지면을 빌어 나를 인턴으로 받아주신 유니코 이동휘 법인장님과 학교 관계자분들, 그리고 김태욱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인턴 생활을 하는 동안 법인장님은 내게 이곳 저곳 모스크바를 많이 돌아다니라고 말씀해 주셨고, 매주 월요일 아침이면 내게 주말 동안 어디를 다녀왔는지 꼼꼼히 물어봐 주셨다. 함께했던 점심 식사와 미팅을 통해 여러 분야에서 일하는 회사원들을 만날 수 있었고, 러시

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경제 상황이나 기업 동향들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러시아 현지 직원들 몇 명과도 친해져서 구내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거나, 탕비실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러시아 회사 분위기도 알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회사 직원들과의 소통은 이후 다른 러시아인들을 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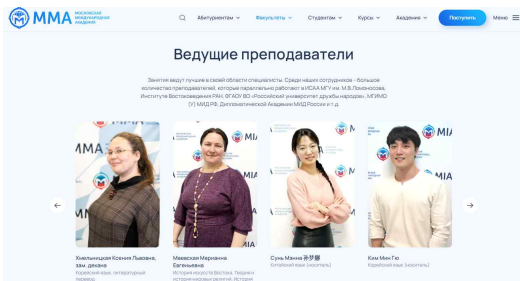
비록 한 달이라는 기간 속에서 어떤 실무적인 일들이 깊이 배울 수는 없었지만,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회사원'으로 살아본 경험은 내게 큰 도움이 되었다. 외국인들과의 라포 형성과 다양한 직업군들에 대한 동향, 러시아 내부 상황에 대한 여러 정보를 현지에서 보고 듣고 느끼며, 러시아에 대해 갖고 있던 그동안의 선입견을 많이 깨트릴 수 있었다.

3. 모스크바 국제 아카데미(Московская Международная Академия)에서의 한국어 강사 경험

인턴 시절 나보다 먼저 교환학생으로 갔던 학과 후배를 통해 MMA의 동양학부 학부장 크세니야 교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 당시에는 내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거에는 큰 생각이 없었고 간단히 이야기만 나누었다. 하지만 1년 기간의 교환학생으로 오면서 학과에서 한국어 강사로 일하게 되었다. 스스로 강의 자료를 만들고 강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미 MMA에서 강의하고 있던 친구의 도움과 조언을 받으면서 조금

씩 해낼 수 있었다.

하루에 몰아서 1~4학년 학생들의 한국어 실습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체력적으로도 힘들었고, 학년별로 각각 다른 수준의 수업을 준비해야 하다 보니 시간도 많이 할애해야 했다. 하지만 러시아어를 사용해서 한국어를 가르치다 보니 내 러시아어 실력 향상에는 꽤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크세니야 교수님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피드백을 통해 점차 내 나름의 교수법도 찾게 되었다. 학생들과 함께 학교 홍보 영상도 찍고, 다른 한국어 교환학생들을 수업에 초대해 언어 교환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MMA 동양학부 한국어전공 홈페이지 내 교수 소개에 올라와 있는 필자의 사진

점차 수업 준비에도 요령이 생겨 예전보다는 시간도 덜 걸렸고, 수업 시간에도 어느새 능숙하게 강의를 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되었다. 나는 러시아어 실습을 할 수 있고, 학생들은 원어인 선생님과 한국어 수업을 할 수 있어서 수업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게다가 많지는 않았지만, 용돈도 벌 수 있었다. 나는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데에 흥미가 있거나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강사 경험을 통해 교육 관련 일에 종사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생각은 교환학생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청주 시내 러시아어권 학생들이 많은 초등학교의 교사, 복지 행정동에서의 업무를 통해 장래 한국어 및 러시아어 관련 교육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3. 러시아어 공부

교환학생으로 공부했던 모스크바 국립언어대학교에서는 문법, 회화, 듣기 등 기초적인 러시아어뿐만 아니라 러시아 사회에 대한 강의, 미디어 러시아어, 비즈니스

러시아어 등 한국 대학 학부에서 배울 수 없었던 다양한 러시아어 강의를 들었다. 특히 비즈니스 러시아어 수업이 가장 많은 도움이 됐다. 다양한 공문서의 정의나 형식을 배우고 정해진 틀 안에서의 명사, 동사, 관용구 활용을 배웠다. 처음에는 어휘들을 몰라서 꽤 어려웠지만, 그만큼 재밌었고 열심히 했다. 한 가지 깨달은 건 공문서는 최대한 동사와 형용사 활용을 줄이고 명사와 관용어 구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적는다는 것이다. 또한 현지 친구들과 사귀면서 배운 회화체와는 완전히 다른 ‘공문서’ 느낌이 매우 흥미로웠다.

학교 강의 외에도 나는 신문을 활용해 러시아어를 공부했다. 지하철역에는 무료 신문이 놓여 있었다. 나는 메트로 신문을 통해서 정치, 경제 분야의 기사와 광고 글을 읽었다. 여기서 내가 배울 수 있던 점은 바로 동음이의어와 방대한 양의 어휘들이었다. 특히 미디어 러시아어 수업에서 배웠던 동음이의어를 신문을 보면서 찾아보고 그걸 토대로 발표 자료와 퀴즈를 준비하면서 담당 교수님께 많은 칭찬을 받았다. 내가 알고 있는 단어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볼 수 있었고 그걸 적용한 결과물을 보면서 좀 더 깊이 있고 다양한 어휘를 활용해 작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안덱스 검색과 REVERSO 앱을 통해서 보다 전문적으로 쓰인 러시아어를 공부한 덕분에 한국에 돌아온 후 공공기관 통역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러시아어 공부에 활용했던 메트로의 무료 신문

러시아 사회학 수업 내용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첫 수업 시간에 공부한 튜체프의 “Смысл о России”라는 유명한 시이다. 러시아만의 독특한 비합리주의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러시아 문화를 알아가던 시간이

기억에 깊이 남았다. 교수님은 흑백 논리로 보는 러시아는 서방세계의 관점이란 말씀도 하셨다. 수업 시간에 배웠던 러시아의 경제, 정치, 인구, 소셜네트워크와 미디어 등의 전반적인 사회학 강의는 러시아를 이해하는 데에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4. 모스크바 한인 성당

인턴으로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먼저 온 후배의 도움으로 생애 처음 성당에 가게 되었다. 그 당시 나는 무신론자였지만 교환학생으로 모스크바를 다시 방문하고 성당을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2023년 12월에 세례를 받아 지금은 천주교 신자가 되었다. 한인 성당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모스크바에서 사는 다양한 한국인들을 만날 기회가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나 호주 등의 메가시티 도시에 있는 한인들 보다 그 수는 적지만, 난 그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빠르게 모스크바 소식을 듣고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또한 성당 미사에 매주 참석하던 중 한식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던 형을 만났고 같이 운동도 하면서 친해질 수 있었다. 세례를 받기로 결정했을 때 그 형은 나의 대부가 되어 주었다. 나중에는 그 형의 부탁으로 레스토랑에서 서빙 일도 돕게 되었다.



모스크바 한인 성당 신자들과 함께

5. 기숙사 생활

다만 교환학생 시절 지냈던 기숙사 시설의 환경은 최악이었다. 기숙사의 낡은 시설과 바퀴벌레, 빈대가 주원인이었다. 각 층마다 공용 주방이 있었지만 너무나 지저분했다. 나는 2인실에 룸메이트 없이 혼자 지내서 그나마 나은 편이었다. 방도 깨끗한 편이었고 바퀴벌레도 거

의 없었으며, 소음도 적어서 나름 만족스럽게 지낼 수 있었다.

혼자 요리하며 식사를 했는데, 한국보다 고기값이 싸서 많이 먹을 수 있었다. 게다가 매일 운동을 했기에 나중에는 가져온 옷들이 작아서 못 입을 정도였다. 러시아에는 유제품의 종류가 정말 다양했다. 내가 '최애'하는 유제품은 바로 сырок이다. 그에 비해 творог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내가 운동하던 곳이 지하철 프룬젠스카야 근처에 있었는데, 그곳에는 주말마다 마치 우리의 '5일 장' 같은 장이 섰다. 한 번도 뭔가를 사본 적은 없었지만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흥미로웠다.

6. 교환학생 친구들

내가 공부했던 모스크바 국립언어대학교에는 충북대 외에도 부산외대, 한국외대, 경희대 그리고 수원대 등에서 온 여러 학생이 있었다. 그중 충북대와 부산외대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난 첫 1학기에 한국인 교환학생들과는 별로 교류하지 않았다. 그보다는 러시아 현지 친구와 한인 성당 사람들과 종종 만났다. 그래서 같은 기숙사에 살면서도 잘 몰랐고, 무엇보다 한국 가서 볼 사람들도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나의 이 생각이 완전히 틀린 것임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다. 2학기를 맞이한 후 4월에 내 생일이 있었고, 함께 생일파티를 하면서 한국 교환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었다. 그 덕분에 우리는 함께 상트페테르부르크 여행도 했고, 그러면서 정말 많이 친해졌다. 더 빨리 친하게 지내지 못한 것이 후회되었다.

모스크바에 먼저 와서 생활했던 한국 교환학생 친구들은 공항에 마중도 나가고 생활에 필요한 정보나 행정적인 여러 도움도 줄 만큼 서로를 잘 챙겨준다. 함께 여행도 가서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친해진 러시아에서의 인연은 한국에서도 이어졌다. 특히 가장 연장자인 형이 주도하면서 계획하면 어린 후배 학생들이 잘 따르면서 정말 좋은 교환학생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었다.

7. 웃긴 해프닝: 내가 여자라고?

모스크바에 도착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공증사무소에 가서 여권 번역 공증을 받았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해서 공증받은 여권을 제출하고 줄을 서 있

는데, 갑자기 내 이름을 부르더니 날 보고 여자냐고 묻는 것이다?! 보니까 여권 번역에 내 성별이 여자로 적혀 있는 것이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실수한 건지... 일단 건강검진은 무사히 다 받고 나왔다.

그런데 2주 뒤 몇 번을 헤매서 다시 찾아간 병원에서 발급받은 내 건강 증명서에 찍힌 성별이 역시 여자로 기재되었던 것... 결국 다시 병원에 찾아가 재발급을 받고 왔는데 이번엔 또 건강 증명서에 적힌 여권번호가 틀린 것이었다. 너무 지치고 화가 나서 큰소리로 우기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번호를 고쳐주었다... 다음부터는 잘 보라고 하면서 발급해 주는데 알겠다고 하고 겨우 건강검진 증명서를 발급받은, 웃지 못할 일이 있었다.

8. 모스크바 한인 식당 아르바이트

성당의 대부님이었던 형의 제안으로 매주 금, 토 저녁 6~11시까지 한인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다. 부족한 러시아어 실력이었지만 주문을 받고 메뉴를 추천하고 서빙하는 데에 큰 문제는 없었다. 나중에 직원들의 말을 들어 보니 손님들도 나를 매우 좋아한다고 했다. 거기엔 나 말고도 주방에서 일하던 키르기스스탄에서 온 3명의 여직원도 있었는데, 나를 잘 챙겨줘서 너무 고마웠다. 그리고 내 생일파티와 다른 교환학생 생일파티도 이 곳 식당에서 했는데 대부님이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재밌게 놀 수 있었다. 신부님과 대부님이 매주 그 가게에서 모임을 하셨기 때문에 나도 일하고 비는 시간이면 같이 앉아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9. 글을 마치며

모스크바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도시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내 안목을 넓혀준 곳이다. 그리고 모스크바에서의 생활을 토대로 내 진로도 정할 수 있었다. 지금은 대학에서 남은 학기 공부를 하면서 통역과 과외로 용돈도 벌고 있다. 이렇게 모스크바는 내게 삶의 방향을 가르쳐준 이정표와도 같은 도시이다.

● 김민규는...

김민규는 충북대학교 러시아어언어문화학과 4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이다. 교환학생으로 모스크바에서 1년을 지내고 한국으로 돌아온 후 현재는 남은 학기 공부를 하고 있다. 동시에 봉명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통역가로 활동 중이며, 러시아어 과외 및 재능기부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다.

(<https://m.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jormungand56&tab=1>)

그 밖에도 국내에 유학 중인 러시아어 화자 학생들의 학업을 돕기 위한 교육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

신간 안내



리옴빠 (Лиомпа, 개정증보판)

유리 올레샤 지음
 김성일 옮김
 미행 2024-05-05
 ISBN: 9791192004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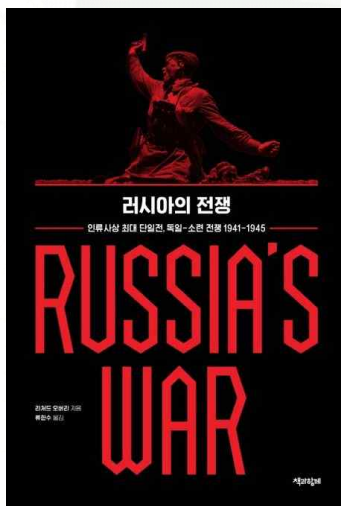
유리 올레샤(Юрий К. Олеша, 1899-1960)는 바실리 칸딘스키, 안나 아흐마토바 등과 함께 우크라이나 오데사에서 활동했던 예술가로, '메타포의 왕'으로 알려져 있다. 1930년대 스탈린주의로 인해 침묵을 강요받았으나, 「질투」, 「세 동보」와 같은 주옥같은 단편을 남겼으며, 작가 사후에 그의 이름을 딴 올레샤 거리와 작가를 기리는 명판이 우크라이나 오데사에 조성되었다.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유리 올레샤 단편집 『리옴빠』에는 약 20여 년간에 걸쳐 집필된 그의 단편소설 총 26편이 수록되어 있다. 올레샤를 대표하는 작품 「질투」와 함께, 그에게 작가적 명성을 안겨준 「사랑」, 「버찌 씨」, 「알데바란」 등의 대표작을 이 단편집을 통해 비로소 만나볼 수 있다.

* 도서링크: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338754482>

러시아의 전쟁(Russia's War)

- 인류사상 최대 단일전, 독일-소련 전쟁 1941-194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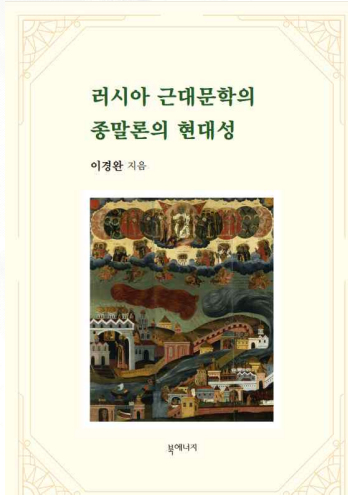
리처드 오버리 지음
 류한수 옮김
 책과 함께 2024-08-31
 ISBN: 9791194263036

제2차 세계대전 연구의 대가 리처드 오버리는 1985년 소련의 '개방(glasnost)' 이후 공개된 새로운 자료들을 바탕으로 독소전쟁의 전모를 파헤친다. 특히 전략, 전투뿐만 아니라 스탈린과 그가 만들어낸 공산당 체제의 특징, 제정 러시아 때부터 형성된 소련의 심성 등 소련 내부의 승리 요인을 균형 잡힌 시각에서 다각도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소련의 승리가 순전히 자연환경과 막대한 인적자원 덕분이었다는 편견을 부수는 동시에, 스탈린 체제와 소련의 양면적 실체를 드러낸다. 2003년에 나온 한국어판에서 번역 오류와 외래어표기를 바로잡고 문장을 다듬어 새롭게 출간했다.

* 도서링크: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345302884>

신간 안내

러시아 근대문학의 종말론의 현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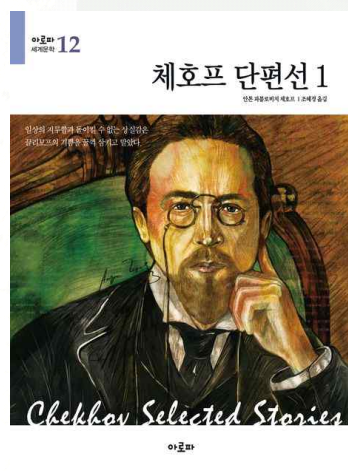
이경완 지음
북에너지 2024-06-20
ISBN: 9791195107049

본 도서는 2019~2022년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결과물로 2021년 발간한 『고골의 종말론의 현대성: 러시아 종교 문예학을 넘어서』(DPI KOREA)의 후속편이라 할 수 있다.

저자는 서구 자유주의와 무신론적 허무주의에 대한 러시아적 대안을 모색한 여섯 작가의 작품 -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오도옌스키의 『러시아의 밤』, 고골의 『도박꾼』, 『외투』, 도스토옌스키의 『악령』,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블라디미르 솔로비요프의 『악에 관한 세 편의 대화』, 미하일 불가코프의 『거장과 마르가리타』 - 을 대상으로 19세기 러시아 작가와 사상가들이 천착한 러시아 메시아주의와 천년왕국설이 서구 사상의 영향과 당대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변주되고 미학적으로 재현되었는지 다각도로 고찰하고 있다.

* 본 도서는 비매품으로 한국노어노문학회 홈페이지에서 본 도서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 관심 있는 연구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호프 단편선 1



안톤 파블로비치 체호프 지음
조혜경 옮김
아로파 2024-08-10
ISBN: 9791187252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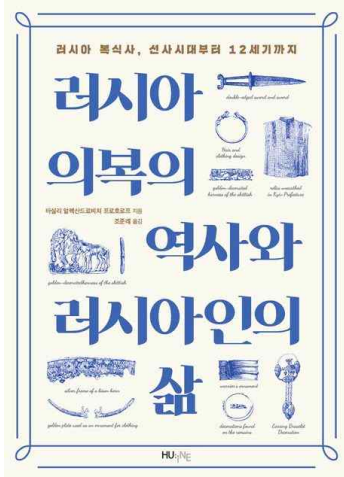
19세기 후반 러시아 문단을 대표하는 작가 안톤 파블로비치 체호프의 단편선이 발간되었다. 본 단편 선집에는 「어느 관리의 죽음」과 「내기」를 포함한 다양한 작품이 실려 있다. 각 작품은 평범한 사람들의 소소한 일상과 인물들의 심리를 세밀하게 묘사하며 체호프가 보고 겪었던 당대 사회를 생생하게 재현해낸다.

* 도서링크: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345293988>

신간 안내

러시아 의복의 역사와 러시아인의 삶

- 러시아 복식사, 선사시대부터 12세기까지 -



바실리 알렉산드로비치 프로호로프 지음

조준래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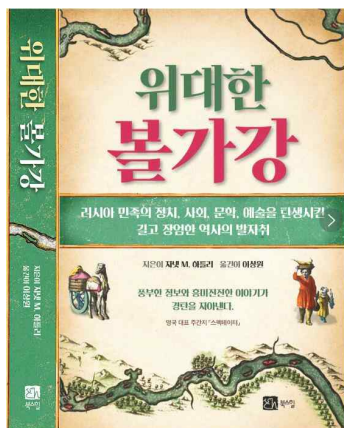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지식출판원(HUINE) 2024-04-30

ISBN: 9791171992409

본서는 러시아의 저명한 고고학자인 바실리 알렉산드로비치 프로호로프가 출간한 시리즈('러시아 의복의 역사와 러시아 민중의 삶') 중 제1권을 옮겨온 것이다. 시리즈 중 의복에 관한 내용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본서는 고대 러시아인의 생활과 러시아 복식의 원류에 대한 중요한 고고학적, 인류학적 가치를 제시한다. 이 책에서는 러시아 내 고분을 비롯한 여러 고대 유물의 출토 자료를 토대로 고대 러시아인의 삶과 생활환경을 보여주며, 러시아의 의복과 전통문화가 스키타이 문화와 비잔틴 문화에서 유래한 것임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역사 이전 시대(기독교 수용 이전 시대)와 역사시대(기독교 수용 이후 시대)로 기준을 나누어 고대 러시아 유물을 고찰한 내용을 담았으며 12세기까지의 러시아 문화를 자세히 보여준다.

* 도서링크: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339005143>

위대한 불가강



자넷 M. 하틀리 지음

이상원 옮김

북스힐 2024-08-15

ISBN: 9791159715983

불가강은 러시아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러시아인들의 젖줄이자, 땅이 정복되고 새로운 국가가 수립되는 격변의 중심지였다. 자넷 M. 하틀리는 불가강을 중심으로 한 역사적 사건들과 문화적 발전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명함으로써 불가강이 러시아에 끼친 영향에 대해 탐구한다. 이와 함께 본서에서 저자는 러시아의 유장한 역사에 대해 민족, 종교, 문화를 아우르는 통찰력 있는 해석으로 역사적, 문화적 기원을 다각도로 고찰해내고 있다.

* 도서링크: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345293988>

공지사항

● 러시아학 4개 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안내

앞서 공지드린 바와 같이, 다가오는 **10월 12일(토)에 고려대학교 하나스퀘어에서 '2024 러시아학 4개 학회 공동학술대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의 대주제는 **<포스트 이후의 포스트: 포스트 팬데믹, 포스트 워, 그 이후의 유라시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일상으로의 복귀와 회복이 채 시작되기도 전에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이 지역을 세계로부터 새롭게 고립시켰고, 누구보다도 우리 러시아학 관련 연구자들에게는 각별한 의미로 다가온 큰 사건입니다. 올해 공동학술대회는 작금의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한 학자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라시아 지역까지 그 연구와 통찰의 범위를 넓혀서 다양한 의견과 시선을 교환하고 공유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포스트 팬데믹', '포스트 워', 그 이후의 러시아와 주변 세계에 대한 진단과 전망을 내리게 될 학문의 장에 학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연례학술대회 (2024.12.07.) 발표자 모집

다가오는 **12월 7일 토요일**에 우리 학회의 **연례학술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발표를 희망하는 회원께서는 **10월 31일까지 학회총무국 메일(karll21@naver.com)로 연락**주시거나, 또는 신규 개편된 학회 홈페이지 내 **'학술대회참가신청'** 메뉴를 통해 발표자 신청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문학, 어학, 문화, 역사와 관련된 자유 테마 발표, 또는 그간의 학술 성과를 요약하여 발표하는 것도 가능하오니 관심 있는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와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 2024 한국노어노문학회 학술상 시상 안내

12월 7일에 개최될 연례학술대회에서 '2024 한국노어노문학회 학술상'이 시상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본 학술상의 후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비전임교원으로 한국노어노문학회 연회비를 납부한 연구자
- 2) 한국노어노문학회에서 발행하는 등재학술지 『노어노문학』에 논문을 게재한 연구자
(기간: 2023년 10월 1일 ~ 2024년 9월 30일까지)

● 신규임용 소식

올 상반기에 우리 학회 회원 및 관련 분야 연구자들이 아래와 같이 신규 임용되었습니다.

- 신혜조: 중앙대학교, 러시아어문학전공, 조교수
- 이종현: 경북대학교, 노어노문학과, 조교수
- 이지연: 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과, 부교수
- 차지원: 충북대학교, 러시아언어문화학과, 조교수
- 황기은: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조교수

임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학회에서 더 자주 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술지 『노어노문학』 투고 안내

한국노어노문학회는 러시아어와 문학, 문화 및 역사를 비롯한 슬라브어문학의 연구와 보급을 위하여 등재학술지 『노어노문학』을 매년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그리고 12월 30일, 연 4회 발행합니다.

학술지 『노어노문학』에 논문투고를 원하는 회원은 아래의 내용에 따라 원고를 작성한 뒤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 내에 논문을 탑재해주시기 바랍니다.

1. 분야 및 원고의 종류

- 1) 분야: 러시아-슬라브권 문학 및 어학, 어문교육학, 역사학 등 인문과학 전 분야
(단, 이전에 다른 곳에서 출판된 적이 없거나 출판 예정에 있지 않고, 출판을 위한 논문심사 기간이 겹치지 않는 원고)
- 2) 원고 종류 : 상기 분야의 연구논문, 서평, 문헌 연구 및 보고서, 자료 개관 등 요령

2. 논문투고 자격: 연회비 납부 의무를 완수한 회원 혹은 외국인 학자

3. 논문의 분량

- 1) 연구논문은 요약문 및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편집본 기준 최대 A4 30매 ('아래아 한글'로 작성 시, 편집 이전 기준 A4용지 약 20매, 혹은 MS-워드 A4 용지 약 24매 내외에 해당) 이내로 작성하며, 이를 초과할 시 편집본 기준 장당 2만 원의 추가 인쇄비를 내야 한다.
- 2) 서평, 특수 분야에 관한 문헌 및 자료 개관 등은 '아래아 한글' A4지 10매(편집 이전 기준)를 넘지 않아야 한다.

4. 사용언어: 본문은 한글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요약문은 본문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5. 투고 방식: 논문투고는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 (JAMS 2.0)을 통해 이루어지며, 투고자가 원고를 JAMS 시스템 내에 직접 탑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JAMS 시스템에서 회원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 등재학술지 『노어노문학』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 링크: <https://karll.jams.or.kr>

6. 원고 형식

- 1) '아래아 한글(hwp)'로만 작성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인투고자 경우에만 MS-워드 문서 작성을 허용한다. 논문작성양식을 이행하지 않고 투고된 논문은 반려한다.
- 2) 연구논문은 논문 제목, 본문, 각주, 참고문헌, 본문과 다른 언어로 작성된 요약문(한글의 경우 500자 내외, 외국어의 경우 200단어 내외)을 반드시 포함해야만 한다.

- 3)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최종본 제출시 별도의 파일로 (1) 논문의 한글 제목 및 영어 제목, (2) 저자의 한글 이름 및 영어 표기 이름, (3) 5개의 한글 및 영어 표기 주제어(key words)를 제출해야 한다.
- 4) 논문 투고 시 반드시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 사사 표기를 지우고 논문을 탑재한다.

7. 제출마감일: 매년 2월 20일(제1호), 5월 20일(제2호), 8월 20일(제3호), 11월 20일(제4호)

8. 논문심사료 및 게재료 규정

1) 논문심사료: 논문 제출 시, 연회비(5만원)와 심사료(6만원)을 『노어노문학』편집부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 단, 평생회비 납부자는 연회비 납부를 면제함)

2) 논문게재료

- 논문게재가 확정된 저자는 논문의 최종본과 함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 논문 게재료는 전임, 비전임 구분 없이 연구비 수혜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납부한다.

※ <연구비 수혜논문> 30만원

<연구비 비수혜 논문> 10만원 (별쇄본 인쇄비 포함 금액)

단, 서평, 문헌 연구 및 보고서, 자료 개관의 경우는 게재료를 받지 않는다

9. 배포 방식: 온라인 배포가 원칙이나, 논문을 게재한 저자에게는 인쇄본과 별쇄본을 지급한다.

10. 저작권 소유 및 활용: 『노어노문학』에 투고한 저자(일동)은 투고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노어노문학회에 양도하며,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회에 귀속된다. 저작권 양도는 저자 전원의 서면 동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 기타 논문 투고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한국노어노문학회 편집부 메일(karlledit@naver.com)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비납부 현황

● 평생회비 납부 회원

강덕수	강명수	강수경	강홍주	곽태석	고 일	권철근	기연수	김경태	김군선	김근식
김기열	김문황	김민아	김상현A	김선진	김선명	김성완	김성일	김세일	김신효	김원한
김유진	김재환	김정아	김정일	김준석	김진규	김태옥	김 혁	김현택	김홍중	문석우
문성원	문준일	박미령	박선영	박영은	박춘은	박태성	박혜경	배대화	백준현	서상국
석영중	손현익	송정수	송현배	신보람	신혜조	심용보	안병용	안병팔	안상훈	안 혁
양영란	양창렬	오종우	유승만	유학수	윤경숙	윤우섭	이기주	이길주	이덕형	이명자
이상룡	이수경	이영범	이용권	이은순	이종진	이진아	이진희	이형구	이희숙	이희원
장 실	장혜진	전혜진	정막래	정미숙	정보라	정세진	정연호	조성연	조혜경	차지원
채혜연	천호강	최건영	최영미	최윤락	최인선	최종규	최진석	최행규	추석훈	표상용
한만춘	한예경	한 용	한지형	함영준	홍기순	홍대화	홍상우	홍정현	황기은	황성우

● 평생회비 분납 현황

윤새라(35만원)

● 2022년 연회비 납부 회원

가옥 류드밀라(Гаук Людмила)	권경준	길윤미	김나영	김연경	김혜진	남대현	남혜현			
박미정	신봉주	유정화	이남경	이상아	이성민	이승억	임수영	전미라	정지운	조준래
카파루쉬키나(Капарушкина Д.И.)	한현희	허선화	홍선희	황서경						

● 2023년 연회비 납부 회원

강동희	길윤미	김나영	김세림	김은진	박미정	박인나	박현지	오동건	이종현	한현희
아나스타시야 레드코(Анастасия Редко)										

● 2024년 연회비 납부 회원

김수환	김영춘	김혜영	김용화	백경희	유정화	강동희	천서현	류서명	박미정	이에바
남혜현	류순옥	이상아	이태훈							

● 씨앗기부금 후원 현황

2023년: 김상현(40만원), 전혜진(50만원)

2024년: 김성일(15만원)

※ 상기 회비 납부 현황에 착오가 있을 경우, 학회총무국(karll21@naver.com)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시와 함께 머무는 시간

Ленинградская поэма

Ольга Берггольц

Я как рубеж запомню вечер :
 декабрь, безогненная мгла,
 я хлеб в руке домой несла,
 и вдруг соседка мне навстречу.
 - Сменяй на платье, - говорит, -
 менять не хочешь - дай по дружбе.
 Десятый день, как дочь лежит.
 Не хороню. Ей гробик нужен.
 Его за хлеб сколотят нам.
 Отдай. Ведь ты сама рожала... -
 И я сказала: - Не отдам. -
 И бедный ломоть крепче сжала.
 - Отдай, - она просила, - ты
 сама ребенка хоронила.
 Я принесла тогда цветы,
 чтобы ты украсила могилу. -
 ...Как будто на краю земли,
 одни, во мгле, в жестокой
 схватке,
 две женщины, мы рядом шли,
 две матери, две ленинградки.
 И, одержимая, она
 молила долго, горько, робко.
 И сил хватило у меня
 не уступить мой хлеб на гробик.
 И сил хватило - привести
 ее к себе, шепнув угрюмо :
 - На, съешь кусочек, съешь...
 прости !
 Мы для живых не жаль - не
 думай. -

레닌그라드 서사시

번역: 강수경(부산대)

난, 나무에 새긴 표식처럼, 저녁을 기억한다:
 12월, 불빛이라곤 없던 암흑,
 난 손에 빵을 들고 집으로 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맞은 편에 이웃 여자가 다가왔다.
 - 원피스랑 바꿔, - 라고 말한다,
 - 바꾸기 싫으면, 그냥 우정으로 줘.
 10일째 딸이 누워있어:
 묻지를 못하고 있어. 관이 필요해.
 빵을 주면 만들어 준대.
 줘. 너도 아이를 낳아 봤잖아... -
 난 말했다: - 안 줘. -
 그리고는 보잘것없는 빵 조각을 더 짹 쥐었다.
 - 줘. - 그녀는 부탁했다, - 너도
 아이를 묻었잖아.
 난 그때 꽃도 가지고 갔어,
 무덤을 장식하라고, -
 ...마치 땅 끝에서,
 어둠 속에서, 무자비한 싸움을 벌이는 한패인 것처럼,
 두 여인인 우리는 나란히 걸었다,
 두 명의 엄마, 두 명의 레닌그라드 여인.
 그리고 그녀는 정신없이
 간구했다. 오래, 슬프게, 조심스레.
 그렇지만 내겐 힘이 충분했다.
 관을 사는 것에 내 빵을 양보하지 않을.
 그리고 힘이 충분했다, 그녀를 불러
 쓸쓸히 속삭일:
 - 자, 한 조각 먹어, 먹어... 미안해!
 살아있는 자들에게겐 아깝지 않다. - 생각은 하지 마. -

...Прожив декабрь, январь, февраль,
я повторяю с дрожью счастья:
мне ничего живым не жаль -
ни слёз, ни радости,

ни страсти.
Перед лицом твоим, Война,
я поднимаю клятву эту,
как вечной жизни эстафету,
что мне друзьями вручена.
Их множество - друзей моих,
друзей родного Ленинграда.
О, мы задохлись бы без них
в мучительном кольце блокады.

<...>

12월, 1월, 2월을 살아내고,
난 행복의 전율로 반복해 말한다:
살아있는 이들에겐 전혀 아깝지 않다고,
눈물도, 기쁨도,
열정도.

전쟁아, 네 얼굴 앞에서
나는 이 맹세를 높이 든다,
마치 영원한 생명의 소식처럼,
친구들이 내게 전하라고 명한.
그들은 수없이 많다, 내 친구들은,
내 고향 레닌그라드의 친구들은.
오, 우리는 그들이 없었더라면 숨이 막혔으리
고통스런 봉쇄 속에.

<이하 중략>

올가 베르골츠의 작품 「레닌그라드 서사시」를 발췌
번역하여 실었다. 올가 베르골츠는 레닌그라드 봉쇄
시기 <돔 라디오>를 통해 자신의 시를 창작하고 낭독
하며 봉쇄된 도시의 주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시인
이다.

2024년은 레닌그라드 봉쇄 해제 80주년을 맞이한 해
이다. 여전히 '전쟁'이 지금의 키워드가 되고 있는
역사적 아이러니 속에서 베르골츠의 서사시를 다시
읽어본다.